

# 계급이란 무엇인가?

社會階級概念研究\*

金 彩 潤\*\*

<目

次>

I. 序

III. 階級概念의 整序

II. 多樣한 階級 概念

IV. 階級과 階層

## I. 序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또한君子가 아니겠는가?」(人不知而不愠不亦君子乎)라고 한孔子의說破는 매우逆說의이다. 거기 이론바君子는非凡하고 희귀한 존재임이 분명하다.君子는凡人 또는 일반인과는 판이하게思考하고言行하고 생활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한君子의屬性은凡人에게는 찾아 보기 어려운君子特有的 것이다라고 생각된다. 거기孔子는凡人 또는 일반인은 남이 자기의 존재를 알아 주지 않으면 십중팔구기분 나빠하고 성내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孔子는君子가 아닌, 또는君子가 못되는 일반인은 자기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존재를誇示하고자 하는習性을 지니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은地位 또는 자기존재에 대한 인간의關心은 차라리本能的이라고 할 정도로 깊숙하고 강렬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테면 인간의思考·行爲를 이론바 네 가지 關心으로 설명한 토마스(W.I. Thomas)는 남으로부터認定받고 싶어하는 관심(욕망)을食欲, 性欲 등에 뜻지 않는 인간의 기본적욕망의 하나로 규정한다. 그와 같은 인간의性向을 더욱 강조한 팍카드(V. Packard)는 한결음 더 나아가서 인간을 아예「地位追求者」(status seeker)로 규정하지 않았던가?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지위에는 자기지

\* 이論文은 修岩獎學文化財團의 支援으로 이루어졌다.

\*\* 서울대, 사회학

위뿐만이 아니라 他者の 그것까지 포함됨은 물론이다. 지위는 언제나 相對的인 성질의 것이다. 거기에는 上下, 高低, 優劣, 強弱의 差等이 내포되어 있다. 사람들은 자기의 지위와 타인의 그것, 그리고 타인의 그것들을 비교·평가하는 경향을 지닌다.

사회적지위야 말로 사람들의 日常的 關心의 중심이며 인간의 喜悲哀樂은 그것을 둘러싸고 싹트고 퍼져나간다. 사람들의 希望, 抱負, 幻想, 絶望, 落膽, 挫折 등 모두가 지위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의 生存條件을 결정하고 개인의 운명을 좌우한다. 사람들은 제나름으로 또는 사회적 通念에 따라서 自他의 지위를 인지하고 거기 대한 觀念, 이데올로기, 態度를 지니고 거기에 대응하는 행위를 한다. 그들은 여러 가지의 기준과 방법으로 自他의 지위를 비교·평가하고 거기에 맞추어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면서 타자로부터 거기에 걸맞는 인정과 대우를 받기를 바란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위에 상응하는 적정한 평가와 대우를 기대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람들은 過小評價보다는 過大評價를 선호한다. 사람들의 사고, 언행, 생활은 그들의 지위와 직결된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의 사고, 언행, 생활 등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지위를 알아야 한다.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회적 지위를 겸유하고 있는 일단의 사람들을 한데 묶어 그것을 여기 일단 사회계급이라고 해두자. 그러면 상기한 바와 같은 사람들의 사고, 행위, 생활 등은 그들이 속하는 사회계급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나의 계급에 속한다는 것, 즉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것은 그들이 받는 각종의 사회적 대우 또는 보수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계급은 각종의 사회적 대우·보수 또는 사회적 자원의 배분 또는 획득기회가 사람들의 지위에 따라서 서로 불평등한 사회의 구조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에는 상기한 바와 같은 계급적 현상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것을 파악하려고 할 때는 우리를 극도로 혼란하게 한다. 사실 계급을 분간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前近代社會에서는 사람들의 지위 또는 계급적 지위는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自明한 것이기도 하였다. 사람의 外樣이나 衣服만으로도 그것을 대충 알아 맞출 수가 있었다. 그러나 既成服時代 또는 사회적 지위에 따르는 衣服이나 頭髮의 규제가 없는 현대사회에서는 외양을 통하여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를

알아 맞춘다는 것은 마치 共同湯에서 발가벗은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를 알아 맞추는 일 뜻지 않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계급 또는 그와 비슷한 그 무엇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막상 그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사실 한가지만 가지고도 계급의 개념부터가 매우 복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추측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러한 개념의 복잡성은 계급이라는 현상 자체가 지니고 있는 복잡성 바로 거기에서 유래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사실 사회학에서 계급의 개념처럼 다양성, 복잡성을 극한 것도 드물다. 계급개념의 역사에서 우리는 사회학자들이 계급현상을 보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合意, 심지어는 거기 관한 用語에서 조차 合意를 이루는데에 力不足하였다라는 사실을 쉽게 알게 된다. 이미 60여년 전에 쏘로킨(P.A. Sorokin)은 32가지의 계급개념을 예시했을 정도다.

사회계급개념을 다양하고 혼란하게 하는 원인은 계급현상 자체의 복잡성 그것뿐만이 아니라 계급의 原理와 계급체계의 유형 등이 시대에 따라서 끊임 없이 바뀐다는 사실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한 변화는 急激한 것일 수도 있으나 느릿느릿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상이한 계급의 원리와 유형이 중첩되어 共存할 수도 있고 또 過渡的 현상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뜻에서 계급의 類型, 이를테면 카스트, 身分, 계급 등은 역사적 개념임과 동시에 비 역사적・通時的 개념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미국은 흔히 일컬어지는 바와 같이 계급사회이면서도 黑白間의 차이는 카스트的인 것과 같은 것이고 한국에서는 오늘날 경제적 지위가 중시되는 계급적 원리가 지배적이면서도 通婚에서는 여전히 身分이 중시되고 있다. 또 현대의 계급원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프랑스이면서도 아직도 그 일부에서는 古風스런 中世的 傳統의 貴族・騎士 등의 작위나 칭호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교과서적 수준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인용되는 여러가지의 계급개념을 인용・나열하고 나아가서는 그것들을 특정 기준에 따라서 分類 또는 整序함으로서 계급개념의 主要範疇를 식별하고 그리고 각 종 계급개념의 位置 또는 住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데에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 그리고 계급개념의 두가지 類型이라고 할 수 있는 階級과 階層의 개념적 구성내용과 그 각각의 특징을 밝히는 것도 이 글의 목표의 하나다.

階級과 階層의 관계, 계급과 계층의 地域的範圍와 數, 계급과 계층의 境界

線 등, 계급개념의 또 다른 主要側面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社會學的 意味와 妥當性이 큰 계급개념은 어떤 것인가, 마지막으로 계급적 현실과 계급개념의 관계 등에 대한, 말하자면 이 글의 結論的 部分은 뒷날 따로 다루게 될 것이다.

## II. 多樣한 階級概念

여기에서 일단 계급이라고 부르는 같은 또는 비슷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또는 그렇게 평가되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範疇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 이름과 뜻으로 쓰이고 있어 우리를 적지 않게 혼란하게 한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집단 또는 범주의 正體, 定義, 概念 등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異論이 분분하여 우리를 더욱 혼란하게 한다. 계급에 대한 인식, 반응 또한 다양하다. 어떤 사람들은 계급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말한다. 거기 그들은 계급적 이해관계, 계급의식, 敵對的 계급, 계급투쟁, 革命 등을 연상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계급과 계급의 관계는 相互補助的이며 溫情的인 성격의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階級觀 또한 各樣各色이다. 어떤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不平等現象은 이론바 진보적인 階級論에 의해서만이 올바로 다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이론이나 視角은 반동적·퇴폐적·보수적인 것으로 매도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로 매도당하기가 일쑤인 보수적이고 온건한 학생들도 그들 나름으로 온존하고 있다. 우리는 계급개념의 整序에 앞서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계급개념이 다양하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에는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계급개념들을 여기에 열거해 보기로 하자. 그 대부분은 그나름으로 이미 分類, 整序된 것들이며 거기에는 서로 중복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 II-1. 階級概念 1<sup>(1)</sup>

#### II-1-① 階級=結社

계급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람들을 成員으로 하는 結社的集團이다. 계

(1) "Popular Understandings of Social Class" in Lasswell, *Class and Stratum; An Introduction to Concepts and Research*, Houghton Mifflin Company, 1965에서 要約.

급과 계급을 가로지르는 線 또는 경계는 자유로이 넘나들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것은 굳은 장벽이며 斷切의 선이다. 특히 上流계급과 다른 계급 간의 경계는 더욱 견고하다. 상류계급은 매우 排他的이다. 그런 경향은 지역이 좁은 마을이나 小都市의 상류계급의 경우 가장 두드러진다. 거기서는 이를테면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하더라도 富有的 그곳 土豪들에 의해서 상류계급의 성원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 II-1-② 階級=文化的集團

계급은 生活樣式과 같은 文化的屬性을 共有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같은 계급의 성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結社해야 하는 것도 또 서로 對面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계급성원은 특수한 행위양식과 言行과 사물을 지니고 또 같은 취향, 감정, 가치관, 규범을 지닌다. 이를테면 上流계급은 古法을 지키고 그들 特유의 凡節, 규범이 따로 있고… 또 中間계급의 文化와 도덕이 따로 있고… 요컨대 계급은 각각의 文化的背景과 상징을 지니는 文化的 集團이다.

### II-1-③ 階級=人口學的範疇

계급은 수입, 교육, 住居, 건강, 所有, 子女數, 都市農村 등과 같은 지표에 의해서 구분되는 人口學的範疇다. 그것은 人口學에서 이를테면 5세 간격으로 인구를 연령별 범주로 구획하는 것과 같은 것.

## II-2. 階級概念 2<sup>(2)</sup>

### II-2-① 威信의 視角

계급은 위신을 중심으로 규정되는 집단이다. 위신은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는 것으로 그것은 他者の 의견에 의존하는 성질의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地位, 人品, 직업, 소속집단들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의 산물이다.

### II-2-② 文化的視角

계급은 계급성원의 文化를 중심으로 규정된다. 그것은 일정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거기 문화는 집단성원들이 공유하는 규범 또는 규범적 행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綜合的體系다.

### II-2-③ 結社의 視角

---

(2) "A Paradigm for the Study of Social Strata", Roach, Gross, Gurssili, *Social Stratification in the United States*, Prentice-Hall, Inc. 1969에서 要約

계급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사람들로 결합된 社會로 보아야 한다. 이런 視角을 취하는 경우 사람들은 먼저 결합된 이외의 다른 각도에서 일단 계급을 규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테면 먼저 人口學的角度에서 계급을 규정한 뒤 일정 계급성원들이 동일계급성원들과 通婚과 같은 결사를 하는 정도를 파악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사회에 실제하는 친목단체등을 결합의 視角에서 관찰하므로서 계급의 수준을 가늠한다.

#### II-2-④ 影響力의 視角

계급은 合法的인 權威, 비합법적인 權力을 포함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규정된다. 말하자면 상대방의 抵抗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집단이 자기 意思를 실현할 수 있는 蓋然性으로서의 영향력이 계급을 규정하는 것이다. 거기 계급의 파악은 이른바 名望의 測定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 技法은 전기한 威信의 시작에서의 그것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II-2-⑤ 人口學的視角

계급은 사회의 母集團인 人口를 이를테면 수입, 교육, 업적, 직업, 知能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한 사회적 범주다. 그것은 人口調查資料에 의거하여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II-2-⑥ 社會心理的視角

계급은 독특한 社會心理를 지닌 말하자면 象徵的인 일종의 準據集團이다.

### II-3. 階級概念 3<sup>(3)</sup>

#### II-3-① 階級=自然的秩序

계급은 인간의 統制밖에 있는 社會力의 자연적인 歸結로서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보편적 현상이다. 계급현상 즉 인간간의 不平等현상은 自然的秩序 또는 自然的現象이며 거기 사람들은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 놓이고 거기에 적응할 뿐이다. 거기 사람들의 계급적위치는 불가피, 불가변한 것으로 개인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거기 계급은 가장 原初的인 사회범주로서 거기에 따라서 개인의 地位, 役割과 관련되는 이를테면 직업, 배우자, 衣食住 등이 결정된다. 이 경우 계급은 宗教的, 生

(3) VII "Continuity and Change" in L. Reissman, *Class in American Society*, The Free Press of Glencoe, Illinois, 1959에서 要約

物學的인 성질의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도의 카스트는 종교에 의해서 규정된다. 또 貴族主義의 경우에 특히 그러하지만 계급적 차등은 遺傳的인 歸結로 해석되기도 한다. 귀족과 같은 上流계급은 본질적으로 우수한 자질을 타고 난다고 믿어진다. 한결음 더 나아가서 계급은 각종의 社會力의 複合的作用의 결과로 해석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를테면 父母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出生과 동시에 각각 상이한 지위를 누린다. 그리고 사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원초적 지위를 지킬 것을 종용하는 경향이 있다. 거기 그러한 불평등은 自然的秩序의 하나로 해석된다.

### II-3-② 階級=報酬體系

계급 또는 계급의 체계는 사회성원의 社會的貢獻度에 맞추어 배분되는 差等의 報酬의 體系다. 거기 공헌 또는 寄與의 정도의 평가와 거기 맞추어 배분되는 보수의 정도는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보수 체계는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믿어진다. 보수의 정도와 유형은 업적에 걸맞게 규정되고, 거기에 나타나는 보수의 불평등은 바람직하고 만족스럽고, 그리고 정당한 것으로 이해된다.

### II-3-③ 階級=不在

계급의 존재 자체가 부인된다. 이것은 대체로 계급의 존재를 부인하려는 특정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일종의 主張이다. 과거의 소련이나 이스라엘에서와 같이 강한 平等이데올로기가 팽배하던 곳에서 볼 수 있었던 관념. 그런 사회에도 사실상의 불평등체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한 불평등이 평등가치관에 의해서 정당화되었을 뿐이다. 이를테면 상류계급성원은 단민의 평등과 복지를 위하여 그만큼 크게 공헌한 사람들이라고.

## II-4. 階級概念 4<sup>(4)</sup>

고오든(Gordon)은 지난 수십년간의 계급결정인에 관한 文獻을 섭렵·분석, 그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즉 經濟的要因, 地位歸屬, 政治權力, 集團生活의 要인, 文化的要因이 그것이다. 거기 그는 앞의 세 가지는 배버의 이른바 계급, 身分, 權力(Class, Status, Power)의 그것과 유사하 것으로 해석하고(여기서는 생략) 뒤의 두 가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한다.

---

(4) Chapter 6 "Concepts and Methods" in Roach et als, *Social Stratification in the United States*, op. cit.에서 要約

### II-4-① 集團生活

계급은 서로 친근하고 의미 있는 사회적 접촉교섭을 하면서 친근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계급은 共同생활을 하면서 피차를 平等視하는 사람들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 II-4-② 文化的屬性

계급은 일정계급에만 特有한 일관성 있는 文化的屬性에 의해서 규정된다. 이를테면 소비유형, 衣生活, 言語, 지역사회활동 등이 그것이다. 거기 계급은 태도, 가치관, 신념 등의 복합체이며 특정양식의 生活을 지향하는 文化集團이다.

## II-5. 階級概念 5<sup>(5)</sup>

### II-5-① 階級構造=單一構造

계급들은 하나의 單一한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三角形, 다이아몬드, 四角形, 피라밋 등과 같은 모습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가장 보편적인 계급개념의 하나. 거기 계급과 계급간에는 그것을 가로지르는 水平線이 있으며 거기에 나타나는 계급구조의 垂直的次元은 각계급의 높이를, 水平的次元은 각계급의 성원의 수를 나타낸다.

### II-5-② 階級構造=複數構造

모든 사회에는 각종 차원의 계급구조가 복수적으로 존재한다. 소규모의 농촌사회에서조차도 單一구조로서의 계급구조는 없다는 것. 사회에는 별개의 계급적 次元과 그것을 중심으로하는 계급구조가 共存한다.

### II-5-③ 階級=機能的

階級은 社會福利에 기여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格下의 산물인 바 거기 報酬의 不平等體系로서의 계급은 사회를 活性化하고 사회성원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메카니즘으로 그것은 전체사회에 대하여 기능적인 성질의 것이다.

### II-5-④ 階級構造=連續體

계급의 序位를 나타내는 尺度는 저변으로부터 預上에 이르는 연속적인 直線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하여 이를테면 특권, 권력, 지위등에 있어서 높이

(5) Part I-3, "Some Scholarly thought about Class, Status and Stratification" in Lasswell, op. cit.에서 要約

를 달리하는 각 범주들이 계급구조의 저변으로부터 정상에 이르는 이 尺度上에 놓여 있다는 것. 거기 계급과 계급은 서로 연속되어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어떤 뚜렷한 斷切 또는 分界線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 II-5-⑤ 階級의 境界

계급과 계급은 서로 연속적이라는 생각은 지역사회구조의 記述에 부적합하다고. 즉 거기 계급은 각각 특징적인 屬性을 지니는 實體라는 것. 거기 계급은 이를테면 직업, 수입, 교육, 인종등과 같은 여러가지 次元의 綜合的評價에 의해서 구획되는 것이다. 요컨대 그런 경우 계급과 계급사이에는 뚜렷한 경계가 있다는 것이다.

#### II-5-⑥ 階級=利益集團

계급은 共同利益에 의해서 연계되는 사람들의 集合이다. 거기 利益은 적극적으로 추구되는 것일 수도 있고 빼앗기지 않게끔 방어되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떻든 그런 利益의 共通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그들을 계급으로 통합, 결속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이다.

#### II-5-⑦ 階級=人間關係

계급은 인간관계의 일면. 사람들은 狀況判斷에 따라서 他者를 범주화한다. 사람들은 일단의 사람들과 자기를同一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들과 상호 작용할 때 자기를 그들과 같은 계급의 성원으로 생각한다. 거기 계급은 진밀하게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계급은 狀況的 現象이다.

### II-6. 階級概念 6<sup>(6)</sup>

모든 계급개념에 공통되는 것은 계급은 둘 또는 그 이상의 계급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것. 이를테면 프로레타리아트는 부르geoisie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중간계급은 상류계급 또는 하류계급과의 관계에서 논의되는 것과 같이. 그런데 거기 계급과 계급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또는 계급구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상이한 계급개념 또는 계급의 本質論이 유래한다. 거기 대표적인 계급개념의 圖式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이른바 等級化 또는 序位關係에 입각한 도식이고 다른 하나는 依存關係에 기초한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의 도식은 또 다른 여러가지의 下位圖

(6) Ossowski, *Class Structure in the Social Consciousness*, translated by Sheila Patterson, Free Press, 1963.에서 要約

式으로 分類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 II-6-① 階級關係=等級(序位)關係

계급은 사회성원이 지니고 있는 특정 屬性의 多寡 또는 정도에 따라서 上下・高低로 등급화 또는 서열화되는 사회법주다. 거기 각계급은 質에 있어서는 서로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며 다만 量 또는 정도에 있어서 서로 差等의일 뿐이다.

#### II-6-② 階級關係=依存關係

계급은 서로 質的으로 다른 말하자면 別種이고 서로 依存關係에 있다. 거기 의존에는 두가지 類型이 있다. 一方의 依存과 相互依存(有機的依存)이 그것이다. 전자는 하나의 계급이 다른 계급에 일방적으로 君臨 또는 從屬하는 것. 거기에서는 한 계급의 성공은 다른 계급의 실패를, 한 계급의 이익은 다른 계급의 손해를 의미한다. 이를테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과 같은 것이 그런 계급개념이다. 거기에서는 계급과 계급은 서로 갈등적이고 적대적이고 투쟁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후자에서는 각계급은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지니는 獨自的, 異質的 存在이며 거기 계급과 계급은 有無相通, 相扶相助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거기에서는 이를테면 地主와 小作人,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가 서로를 돋는 溫情的, 機能的인 것으로 생각한다.

### II-7. 階級概念 7<sup>(7)</sup>

계급개념의 多樣性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다아렌돌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階級定義를 대표적인 것으로 例示하고 있다. 그것들을 여기에 옮겨보자.

#### II-7-① 마아샬(Th. Marshall)의 定義

계급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그들사이의 相異를 딛고 집단으로 묶는 힘이다.

#### II-7-② 센터어즈(Centers)의 定義

계층(Stratum)과 구별되는 계급(Class)은 心理的現象으로 생각될 수 있

(7) R. Dahrendorf,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Routledge & Kogan Paul, 1959, pp.74~75.에서 引用

다. 즉 어떤 사람의 계급은 그의 ego의 일부이며 어떤 것에의 자신의 所屬의 감정이며 그보다 큰 그 무엇과의 同一視다.

#### II-7-③ 맥키버(MacIver)의 定義

사회계층은 言語, 지역, 기능, 專門化 등에서 야기되는 制限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다른 것과 확실히 구획되는 공동체의 어떤 부문이다.

#### II-7-④ 크로우너(Croner)의 定義

…사회계급은 세가지 요인, 즉 (1) 비슷한 사회적 조건, (2) 비슷한 사회적 지위, (3) 비슷한 사회적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社會集團이다.

#### II-7-⑤ 워어너와 런트(Warner & Lunt)의 定義

계급은 지역사회의 성원들에 의해서 사회적 우열의 지위를 지닌다고 믿어지는, 그리하여 또 그렇게 等級化되는 몇개의(사람들의) 序列이다.

### III. 階級概念의 整序

여기에서 말하는 계급개념의 「개념」은 論理學에서 말하는 개념 그것과는 차뭇 다르다. 현실과 개념, 계급적 현실과 계급개념, 또는 계급적현실과 계급개념의 관계등에 관해서는 뒤에 얘기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개념」을 定義, 의미등과 같은 다소 느슨한 뜻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사실 II에서 열거한 예들도 따지고 보면 일정한 방향 또는 각도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들은 그야말로 잡다한 계급개념의 나열에 불과하다. 거기에는 이를테면 계급의 本質(II-1), 계급에 대한 視角(II-2), 계급의 正體와 근거(III-3), 계급의 決定因(III-4), 계급구조의 모습과 本質(III-5), 계급구조 또는 계급관계를 보는 圖式(II-6) 등을 각각 중심으로 한 상이한 계급개념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II를 종괄해 보면 계급개념의 다양성 또는 혼란은 주로 계급의 본질, 계급의 決定因, 계급의 관계, 계급의 경계선 등을 둘러싼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를테면 계급은 얼마나 엄격한가, 즉 계급과 계급을 가로지르는 벽은 얼마나 단단한 것인가, 또는 계급적 지위는 歸屬的인 것인가, 業績의인 것인가에 관한 관념이나 견해의 相異, 그런데에서 상이한 계급개념이 유래하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비교적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일부의, 그러면서도 그리

간단하다고 만은 할 수 없는 계급개념들을 대상으로 거기에서 서로 비슷한 것들을 한데 묶고 서로 다른 것들을 추려냄으로써 우리도 흔히 지적되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르면서도 대조적인 범주의 계급개념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 III-1. 實體的階級概念과 分類的階級概念

#### III-1-① 實體的 階級概念

계급=結社, 즉 계급성원은 對內的으로는 서로 긴밀하게 접촉교섭하며 대외적으로는 서로 배타적이라는 견해(II-1-①), 階級=文化的集團, 즉 계급은 동일한 취향, 가치관, 규범등을 포함한 生活文化 또는 문화적 상징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階級觀(II-1-②)은 계급을 무엇보다도 사회적 實體로 보는 말하자면 實體的階級概念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계급에 대한 文化(II-2-②), 結社(II-2-③) 또는 社會心理(II-2-⑥)를 중심으로 하는 視角 또한 實體的階級概念과 밀접한 것이다. 나아가서 계급을 自然的秩序(II-3-①)로 규정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센터즈(II-7-②), 맥키버(II-7-③), 크로우너(II-7-④), 워더너·런트(II-7-⑤)의 계급정의도 계급을 사회적 실체로 보는 경우들이라고 할 것이다.

#### III-1-② 分類的階級概念

계급은 성원의 客觀的屬性, 이를테면 수입, 교육정도, 住居등과 같은 객관적 지표에 따라서 구분 또는 범주화된, 말하자면 일정기준에 의거하여 분류된 사회적 부류(II-1-③)라고 하는 것은 계급을 사회적 실체로 보는 것과는 정면으로 대조되는 分類的階級概念에 근거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다. 威信(II-2-①), 영향력(II-2-④)을 중심으로 하는 시각, 人口學的視角(II-2-⑤), 그리고 계급을 報酬體系(II-3-②)로 보는 경우도 大同小異하다. 위신, 영향력, 보수체계 등은 모두가 일정기준에 의거하여 구획·범주화될 수 있는 객관적, 量的인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계급의 본질을 分類的 概念으로 규정하는 것은 계급은 사회의 특정 측면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회를 일정기준에 따라서 조작적으로 分類한 사회범주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거기 분류기준 또는 操作은 사회의 특정 측면을 파악하려는 의도, 목적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성질의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 III-2. 質的階級概念과 量的階級概念

#### III-2-① 質的階級概念 또는 主觀的階級概念

이를테면 계급=結社(II-1-①)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동일한 계급성원으로 되게 하는 즉 結社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거기 흔히 同類意識 또는 집단의식이 지적 된다. 거기에서는 계급이란 계급의식 또는 같은 집단에 속 한다는 共屬意識을 지닌 사람들의 집단으로 규정된다. 계급=文化的集團(II-1-②)이라는 생각도 마찬가지. 거기 文化는 취향, 가치관과 같은 主觀的・心理的要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文化(II-2-②), 結社(II-2-③), 社會心理(II-2-⑥) 등에 焦點을 맞추는 視角도 대동소이한 성질의 것이다. 계급을 利益集團(II-5-⑥)으로, 또는 계급을 성원간의 相互作用(II-5-⑦)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경우, 그리고 계급을 자연적질서(II-3-①)로 보는 경우 또는 集團生活의 要因(II-4-①), 文化的屬性(II-4-②)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보는 경우도 마찬가지.

계급형성에 있어서의 主觀的要因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계급과 계급은 質的으로 서로 다른 사회적 실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편이다. 한편 質的階級概念에 기운다고 해서 거기 계급의 객관적 요인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서도 이를테면 結社나 文化는 일정수준의 경제적 요인과 같은 객관적・양적요인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려지고 있다.

#### III-2-② 量的階級概念 또는 客觀的階級概念

계급=人口學的範疇(II-1-③)에서와 같이 계급구분의 지표로서의 수입, 교육, 건강, 소유, 자녀수 등은 사람들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測定, 평가될 수 있는 量的요인이다. 이른바 威信(II-2-①)도 그런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향력(II-2-④)도, 그리고 계급=보수체계(II-3-②)라고 하는 경우의 보수도 같은 성질의 요인이다.

대부분의 객관적, 양적 요인은 量이나 정도에 있어서 서로 다른, 그리하여 多寡, 上下, 高低의 序列를 이루는 성질의 것이다. 그것은 가장 많고 큰 것으로부터 가장 적고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연속되어 있다. 거기 계급은 連續線의 어느 곳을 자름으로서 얻어지는 범주라고 할 수 있다. 거기 계급의 구분선, 또는 경계선은 반드시 固定的인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可變的인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IV. 階級과 階層

우리는 당초부터 여기서 말하는 「階級」의 개념과 그것을 가리키는 語彙에는 여러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것들을 모두 한데 묶어 일단「계급」으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위에 인용한 바와 같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는 「일부」의 계급개념들에서 조차도 「계급」 하나만으로는 다양한 계급개념, 階級論을 포괄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계급」 이외의 다른 개념 또는 어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우리는 階級概念의 整序(三)에서도 그러한 必要性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 거기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하는 두쌍의 개념들을 분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즉 Ⅲ-2-①, Ⅲ-3-①은 같은 계열의 개념으로 그것은 Ⅲ-2-②, Ⅲ-3-②를 쌍으로 하는 다른 계열의 개념과는 판이할 뿐만 아니라 두가지는正面으로 대조되는 성질의 것임이 분명하다. 通例에 따라서 우리도 전자를 계급, 후자를 階層이라고 부르자. 계급과 계층의 차이 또는 그 구별에 관해서는 마치 그것이 그 방면 연구의 기본과제인양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密度 있게 논의되어 왔다. 사실 계급, 계층과 같은 개념의 定立 또는 精巧化는 실제의 조사연구에 앞서 반드시 先行되어야 하는 계급론 또는 계층론의 기본적 과제이다. 이를테면 특정사회의 不平等에 관한 조사는 대체로 거기 관한 特定假說을 검증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먼저 조사자가 어떤 계급개념을 가지고 있는 가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계급개념인가에 따라서 조사의 내용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회적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일단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리하여 각각 일정한 높이를 지니고 있는 사회범주를 가리키는 두가지 개념인 階級과 階層은 각각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서로 다른가? 이와 관련, 다아렌돌프(R. Dahrendorf)는 다음과 같은 가이거(Geiger)의 所論을 인용한다. “……계급이란 말은 한편으로는 어떤 型의 인간을 총괄하는 뜻으로 쓰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集合體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전자의 경우 거기 인간은 어떤 특정 내지 일련의 특징들에 따라서 분류된다. 후자의 계급개념은 다른 기원을 지닌다. 거기 계급은 특정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모종의 社會形象, 즉 어떤 全體性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그는 이어 슘페터 (Schumpeter)의 설명도 인용한다. 즉 “그 자체로서 행위하고 고민하고 그 자체로서 이해되기를 바리는 바의 계급과 모종의 표지에 따르는 多樣性의 秩序라는 의미의 계급”의 구별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굳이 다아렌돌프의 해설을 빌리지 않더라도 가이거, 슘페터의 설명의 行間에서 각각 두가지의 계급개념을 식별할 수가 있을 것이다. 가이거의 경우 전자의 계급은 分類개념이고 후자는 實在概念이며 슘페터의 즉 경우 전자는 實在現象이고 후자는 整序現象이라는 것을. 이어 다아렌돌프 자신도 요지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한편으로는 계급은 사회 투쟁속에서 실제로 작용하고 있는 힘으로, 그리고 그런 투쟁의 담당수로 조직화된 집단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급은 支配團體에 있어서의 지위라는 것에서 도출하여 그것을 權力行使에의 參與 또는 배제라는 표지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라고. 말할것도 없이 전자는 實在現象이고 후자는 整序現象, 또는 과학자의 창조물이다.

가이거, 슘페터, 다아렌돌프는 다 같이 계급이라는 이름아래 사실은 전혀 다른 두가지의 개념이 포괄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그것을 각각 社會的實在를 가리키는 實體的 概念과 任意的・人爲的區分을 가리키는 分類的 또는 整序的概念으로 범주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또다시 通例에 따라서 전자를 階級, 후자를 階層이라고 지칭하고 각개념의 구성내용을 양자의 對比를 중심으로 하여 좀더 살펴 보고자 한다.

#### N-1-① 階級

계급을 사회에 實在하는 實體로 파악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集合이 아닌 集團으로 규정한다. 거기 계급성원은 하나의 계급에 속한다는 共屬意識과 같은 집단을 이룬다는 集團意識을 지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 뜻에서 계급은 무엇보다도 먼저 계급의식을 지닌 心理的集團인 셈이다. 심리적 집단으로서의 계급의 형성은 이를테면 生活水準과 生活樣式, 文化, 가치관, 규범 등의 共有를 전제로 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계급의 형성요인으로 경제적인 것을 강조한 마르크스도 계급의 심리적 요소, 즉 계급의식을 계급의 궁극적 요소로 강조한다. 거기 진짜의 계급은 재화의 생산과 교환의 조직 가운데서 같은 역할을 하고 타자에 대해서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단순한 總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초로 주관적・심리적 요소, 즉 계급의식이 싹틀때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거기 전형적인 계급

은 계급성원이 하나의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의식, 연대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의 관심, 政治經濟觀(이데올로기)을 가지고 그 志向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규정된다. 그가 말하는 계급은 뚜렷하게 존재하는 사회적 실체다. 거기 계급이란 생산수단의 소유, 비소유와 거기에서 연유하는 生產關係에 있어서의 地位의 상이에 따라 착취, 피착취 또는 支配, 被支配의 관계에 있는 異質的일 뿐만 아니라 敵對的인 集團이다. 그것은 객관적, 주관적으로 實在하는 사회집단이며 거기 계급과 계급간에는 뚜렷한 경계가 있고 단종이 있는 것이다.

심리적측면을 계급의 본질로 강조하는 또하나의 전형적인 예는 센터즈(R. Centers)의 所論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계급은 사회심리적·주관적 존재이며 그것은 계급의식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거기 계급은 심리적 현상이며 개인에게 内在的인 것이며 자기가 어떤 것에 속해 있다는 감정이며 자기를 자기이상의 그 무엇과 同一視하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숨페터도 계급의 심리적 측면을 강조한다. 즉 “계급은 계급성원의 集合이상의 것이다. 계급은 하나의 전체로서의 一體性을 의식하고 그런 쪽으로 昇化시키는 특유의 生活과 스피릿을 지닌 그 무엇이다.”라고.

계급의 형성요인 또는 특질로 강조되는 심리적 속성 또는 계급의식, 다시 말하면 계급성원들을 하나의 공고한 집단으로 결속하게 하는 심리를 자아내게 하는 요인은 어떤 특질의 것일까? 그것은 여러 계급성원들에 의해서 여러가지 정도로 分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급의 성원들만이 배타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하여 계급은 어떤 特質의 多寡가 아니라 그 有無에 의해서 규정되는 사회적 부류라고 할 수가 있다. 거기 계급은 무엇보다도 質的 범주인 셈이다.

베버의 身分集團(status group)이야 말로 사회적 실체 또는 質的集團임을 강조한, 그리하여 實在개념으로서의 계급개념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한 인간 集合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와 相互排他性에 의해서 다른 집단과는 서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共同體다. 거기 집단성원은 서로 긴밀하게 접촉교섭하고 특유한 관행, 의식, 生活文化를 지닌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계급을 경제·사회·문화적 복합체로 규정하고 이를테면 上流階級의 기본적 특질은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대로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들은 계급의 개념과 命題는 경험적 자료와는 무관하게 고정적

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말하자면 계급개념은 일정한 또는 實在的인 것으로서 그 존재는 특정자료나 현실적 제약과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된다.

#### II-1-(2) 階層

상기한 계급과는 달리 계층은 그 성원이 특정 계층의 성원임을 의식하든 말든 또는 성원들과 어떤 것을 共有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든 어떤 객관적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 사회법주라고 규정된다. 그것은 마르크스가 말하는 계급형성의 한 단계로서의 이론바 卽目的階級(Klasse an-sich)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흔히 특정기준에 의거, 사회를 몇개의 부류로 구획할 때 얻어지는 사회법주다. 그것은 人口調查資料와 같은 특정자료의 조작에 의해서 얻어지는 統計的範疇라고 할 수 있다.

계층은 일반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객관적 차이에 따라서 사람들을 고저, 상하의 법주로 序列化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리하여 그야말로 개념적으로 형성되는 擬似集團으로 이해된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회적 불평등현상에 주목하고 그것을 분간하기 위한 便宜的 구성물이며 여러가지 차원의 불평등의 要約이며 사람들을 人爲的・操作的으로 上下, 우열의 법주로 위치시키는 그리하여 인구의 의도적인 단계적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 계층은 質的 인 것이 아니라 동일한 특정 속성의 多寡 또는 정도에 따라서 구획된 것이다. 따라서 거기 계층과 계층은 어떤 異質的인 또는 敵對的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共通價值를 서로 다른 정도로 分有하고 있는데에서 差等을 지니고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같은 價值體系에 同調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형적 계층론자인 바아버(B. Barber)는 계층을 社會的 평가의 차등에서 유래하는 사회법주라고 규정하고 거기 계층 즉 사회적 법주는 이를테면 직업에 따르는 威信과 같은 선형적 기준에 따라서 구획되는 것이라고 풀이한다. 거기 계층과 계층의 구획은 일정한 것이 아니라 구획하는 意圖 등에 따라서다. 달라질 수도 있는 성질의 것이다. 거기 계층과 계층은 서로 연속적인 것이며 그 사이에 어떤 自然的 斷切이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 계층적인 階는 구조적 위계라기 보다는 連續的 위계인 셈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계층은 일견 자의적・임의적으로 구획한 사회법주에 불인 名目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끝까지 名目에 불과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있는 계층이라고는 보기 가 어려운

것이다. 그것이 아무리 임의적·자의적인 성질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층의 구분과 거기에서 유래하는 계층적 범주에는 그나름의 사회적 의미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사회를 몇개의 계층으로 구획할 수 있다는 것이 곧 임의로 구획해도 좋다는 것과 같은 뜻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구획된 계층이 사회적 실체로서의 계급과 근사할 때 또는 계급과 계층의 경계선이 대체로 일치할 때 계층구획은 제대로 된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저런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現象과 概念의 관계, 또는 계급과 계층의 관계의 논의에서 마땅히 詳論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이글의 繢篇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계층은 社會的動態의 해명을 위한 分析的 개념으로서의 계급과는 대조적으로 그것은 특정 時點에 있어서의 사회의 位階의範疇를 분간, 설명하기 위한 記述的 概念이라는 通說을 덧붙이면서 논의를 일단락지으려고 한다.